

NICCOLÒ

PAGANINI



니콜로 파가니니
기리비치 전곡
드니 성호 안센스, 기타
Naxos 8.572566

몇 해 전 각 방송사에서는 한 재능 있는 기타리스트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아니 재능 있는 이라는 수식어로는 부족할 정도로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드니 성호 안센스였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리처드 용재 오닐처럼 한국 이름을 품에 안고 있는 이 한국계 벨기에 기타리스트는 부산에서 태어나 생후 9개월 만에 벨기에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어떤 입양인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드니 성호 안센스 역시 부모와는 완전히 다른 동양인의 외모로 인해 성장기에 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클래식 기타는 그러한 폭풍과도 같은 혼란기에 드니 성호에게 엄청난 위안을 안겨주었다. 14세라는 어린나이에 벨기에 영 텔런트 콩쿠르에서 입상한 그는 이후 파리 고등사범음악원과 벨기에 몽스 왕립 음악원을 거쳐 브뤼셀 음악원을 졸업하게 된다. 그를 지도한 것은 세계적인 기타 듀오로 알려져 있는 오다이르, 세르지오 아사드 형제였는데 성호 안센스는 이들의 교수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항상 음악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어요. 그들은 내게 기타의 스킬만 강요하지 않았고 기계 같은 오차 없는 연주가 아닌 영혼의 울림을 깨우치도록 가르쳤죠. 이 때문에 독일 문화의 영향이 강한 벨기에에서도 남미의 음악악적 토양 아래서 자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성호 안센스는 뉴욕 카네기 홀, 암스테르담 콘서트허바우, 빈 무지크페라인,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등 세계 유수의 무대와 축제에서 연주를 해왔으며 평단의 찬사를 한몸에 받아왔다. 특히 2007년에 발매한 레오 브라우어의 기타 작품집(Fuga Liebera)은 음악계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009년에 국내의 기획 하에 기타 소품 위주로 구성된 'Remembrance' 역시 SBS 예능프로그램 스타킹의 출연에 따른 유명세와 맞물려 좋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전문 연주자로서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에 도전했다. 먼저 놀란 것은 음반 표지에 새겨진 명확한 한글 표기이다. '드니 성호 안센스'라는 큼직한 한글로 표지를 채우고 있는 음반은 분명 라이선스 음반이 아닌 본사 발매반(Made in Hongkong)이다. 세종 솔로이스츠의 윤이상 음반이 라이선스 되어 발매된 적은 있었어도 인터내셔널 릴리즈에 한글 표기가 되어있는 것은 처음 보았는데 후문을 통해 입수한 소식은 성호 안센스가 낙소스의 관계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 앞으로 낙소스를 통해 좀 더 폭넓게 그의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파가니니의 기타 작품은 외란 설셔와 길 샬함이 함께 한 앨범(Paganini for Two) 정도만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예상외로 파가니니는 이 6현의 악기를 위해 예상보다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특히 어렵함과 서정적인 정취를 지닌 작품이 바로 이 기리비치이다. 총 43개의 개별 작품으로 구성된 기리비치는 기교위주로 구성된 그의 바이올린 작품과는 달리 좀더 따스한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성호 안센스의 유약한 듯하면서도 섬세한 핑거링은 매우 따스한 음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음량이 크거나 격정적이지는 않지만 미묘한 교차를 이루고 있는 각 음표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되고 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타리스트인 중국의 슈페이 양(EMI)이나 일본의 무라지 카오리(DECCA) 같은 특급 기타리스트가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등장한 것 같아 너무나 반갑다. 앞으로 전개될 그의 활발한 연주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어본다. ■

글 | 노태현